

30대 불자 '문화 사업가' 들이 뜬다

30대 초중반 불자 문화 사업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상상과 공존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다. 카페 운영, 불교디자인 제품 개발, 환경제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생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펼치고 있는 이들의 활약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목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기업 모델 제시, 전통문화의 현대화 등 소신 있는 기업 정신으로 뚝뚝 뚝진 30대 대표들을 만나봤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상생과 나눔으로 젊은 기업 만들어 가요”

수행공동체 정신 기업 문화에 접목

전통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



“아직은 실험단계지만 수행공동체를 기업문화에 접목시키고자 해요. 자기변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불교잖아요. 기업 조직 문화에 수행공동체 정신을 불어 넣고자 최근 다양한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어요. 또한 사업적으로는 전통문화콘텐츠로 진정한 한류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죠. 더 나아가서는 제 3세계 국가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문화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호회 대학생 인도봉사 프로그램인 선재수련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서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다보니 밤새며 일해도 너무 재미있고 신나죠. 대표인 저나 사원들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박람회 운영 역시 교계 분들이 저희 열정을 믿고 맡겨주신 편이 커요. 앞으로 불교와 전통을 알리는 기업이라는 본연 목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행공동체를 조직문화에 불어넣고자 하는 마인드디자인은 최근 이와 관련한 조직문화 실천사항을 마련했다. 연 2회 수련회가 및 휴가비 제공, 교육지원제도

등을 신설하고 절대퇴근시간 지정, 탄력 근무제 도입, 해외탐방제공, 108배 명상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승가의 자와 포살에 해당하는 장단점 말하기(6개월에 한번), 대중공사에 해당하는 반성의 시간(매주), 회의전 명상 등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 사찰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김 대표는 불교콘텐츠는

블루오션과 같다고 말한다.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문화재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사실 전통을 낡은 것이라 여기지만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무한한 문화 콘텐츠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청년 불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불교문화를 기업문화에 적용하고 있는 마인드디자인은 매년 전년대비 두 배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직원들이 제품을 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현수막 패션가방 등 자원재활용

터치포곳 박미현 대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NGO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행사 담당이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보면 매주 엄청난 현수막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쌓아두니 그 양이 엄청 많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공부하고 있던 사회적기업과 연계시켜 친구들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현 대표(30)는 2008년 터치포곳을 창업 현재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패션사업, 환경교육사업, 도시환경교육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은 25가지이며 이밖에 파우치, 문구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터치포곳은 폐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을 지향한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처음 활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수막을 재활용한 패션상품에서 시작해 피티빙에서 뽑아낸 실로 제작한 담요, 지하철 광고판을 활용한 컵받침 등의 제품은 재활용의 범위를 넘어 버려진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상품입니다.”

터치포곳은 제품생산을 장애인 작업장 등에 의뢰, 공생의 삶을 실천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터치포곳의 또다른 사업은 그린슬루션으로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공장에서 재고, 불량 혹은 공정상의 문제로 버려지는 재료가 많아요. 저희 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찾아주고 있어요.”

이밖에 박 대표는 도시 환경 교육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도시형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해를 덜 끼치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터치포곳은 친환경 건설링 전문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체험활동과 독특한 제품 아이디어를 세상에 나누며 대중들이 터치포곳의 정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능과 물질 나누며 일자리도 창출

오공카페 조정훈 매니저



서초구 서초동 지하에 위치한 오공카페는 나눔 문화 공간으로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집밥’ 모임, 재능나눔 프로그램, 심야식당, 프리마켓 등 매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나눔과 공생을 실천하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50명의 주인장이 100만원 씩 투자해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오공카페는 재능과 물질을 나누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미 각종 일간지와 방송매체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공카페는 지난해 불광점 오픈에 이어 올 6월 영등포 자선터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카페 매니저 조정훈 씨(35)는 다니던 자회사를 그만 두고, 2012년 정호회 청년부 친구들과 조합 형태의 오공카페를 열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오공카페는 청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현재 2호점인 불광동의 청년허브 오공카페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요즘 불광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세대간 화합을 도모하는 텃밭가꾸기다. “청년 10여 명과 이모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 20여 명이 함께 카페 근처의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어 가꾸는 사업에

요, 지난해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 2천 포기로 만든 김장김치를 1인 청년가구에 나누어 주었죠.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오공카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6월경 영등포구 하자센터에 3호점을 개업을 앞두고 있다. “카페 공간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8명이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엔 청년들의 일자리 요구로 3호점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통한 공생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오공카페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보살 캐릭터 대중과 친숙하게 표현

부다아티스트 정기란 대표



“달마대사, 지장보살, 사천왕 등 절에서 볼 수 있는 사찰의 인물과 보살들은 근엄하고 딱딱하잖아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캐릭터를 좀더 재미있게 표현해 문구 제품에 적용해 봤어요. 제가 만든 상품들을 통해 대중들이 불교를 좀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다아티스트 정기란 대표(31)는 절집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보살과 인물들을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1인 기업으로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스케치북과 엽서 등의 문구류와 휴대전화 고리, 배지, 전자파 차단 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제 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문구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부다아티스트를 창업하게 되었다.

“불교를 접목시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까지 연결이 되었네요.”

물론 정 대표의 제품들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근엄한 불보살들이 웃고 있으니 낯설어 하는 이들도 많

았다고. “1인 기업이다 보니 제가 직접 디자인과 판매를 하고 제품 생산은 의주에 맡기고 있어요. 제품을 들고 사찰에 찾아가면 불보살님을 너무 희화화한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스님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스님들도 신도들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해주세요.”

앞으로 정 씨는 디자인의 범위를 넓혀 좀더 다양적인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24절기와 관련된 행사 제품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좀더 모던한 느낌의 캐릭터로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직원들도 2명 정도 채용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佛記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수좌	중봉	성파
주지	원산	도명

유나천진보탑부주지일해재원총무국장동진	울주중산혜남기획국장영랑교무국장진응
강주현진지형재무국장문수사회국장보원	울원장우설덕문포교국장선본호법국장현중
박물관장무애무애원주마벽농감도훈	도감

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자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佛記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조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지영관

선원장	각초	강주원	오경	부주지	덕문	총무	효광
기획	효진	사회	우경	교육	묵산	도감	덕제
재무	우범	교무	상국	포교	우문	연수	종호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종무소 061)783-7600 팩스 061)782-7601
템플스테이사무국 061)782-7600